

碩士學位論文

濟州 青少年 音樂活動의 實態와  
그 代案

－ 青少年 器樂 演奏團體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 教育專攻

張 文 姬

2008 年 8 月

# 濟州 青少年 音樂活動의 實態와

## 그 代案

- 青少年 演奏團體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大 植

張 文 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 年 8 月

張文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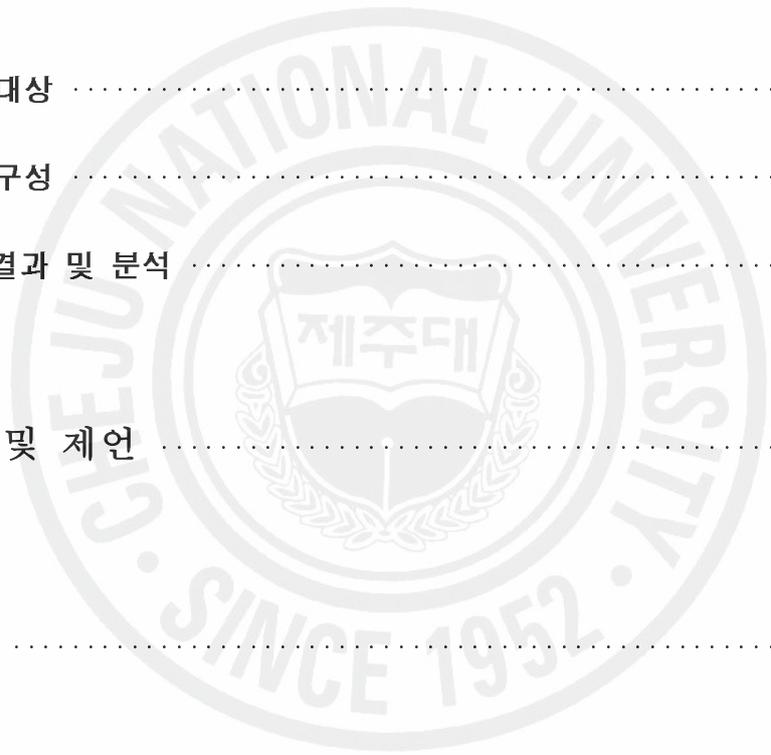
2008 年 8 月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1
II. 이론적 배경 .....	3
1. 제주지역 음악의 태동 및 성장 .....	3
가. 해방과 6·25 전쟁 전후 음악활동 .....	3
나.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의 창설과 발전 .....	4
2. 민간 청소년 음악단체 현황 .....	5
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	5
나. 제주청소년관악단 .....	5
다.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	6
라. 제주플루트청소년앙상블 .....	6
마.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	6
바. 제네스 챔버오케스트라 .....	7
사.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플루트앙상블 .....	7

3.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관악대 현황	8
가. 고등학교 관악대	8
나. 중학교 관악대	11
다. 초등학교 관악대	11
Ⅲ. 제주도 청소년 음악단체의 실태와 문제점	13
1. 청소년기의 음악교육	13
가. 청소년 인구현황	13
나. 청소년 음악활동 추산 인구	14
다. 청소년 음악단체 현황	15
2. 청소년 음악활동의 문제점	17
가. 예산에 따른 문제점	17
나. 운영과 활동의 문제점	18
Ⅳ. 문제의 해결 방안	20
1. 행·재정적 해결 방안	20
가. 청소년 음악단체의 道立·市立화 필요성	20
나. 제주道立(市立)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의 필요성	22
다. 청소년 음악단체 활동 공간 확보와 지원	24

2. 문화적 해결 방안 .....	26
가. 청소년 음악캠프 및 페스티벌을 통한 해결 방안 .....	26
나. 메세나 운동을 통한 해결 방안 .....	28
다. 제주의 음악단체를 위한 메세나 운동 확산 방안 .....	30
V. 설문조사 및 통계 .....	33
1. 설문대상 .....	33
2. 문항구성 .....	33
3. 설문결과 및 분석 .....	36
VI. 결론 및 제언 .....	54
참고문헌 .....	58
국문초록 .....	60
Abstract .....	62



## 표 목 차

<표 IV-1>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산편성 .....	24
<표 IV-2> 청소년 연주 단체별 연습실 임차료 현황 .....	25
<표 V-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성별) .....	37
<표 V-2>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거주지역) .....	37
<표 V-3>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연령) .....	38
<표 V-4>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학교) .....	38
<표 V-5> 악기소유 여부 .....	39
<표 V-6> 응답자들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종류 .....	39
<표 V-7> 음악활동 시간 .....	40
<표 V-8> 음악활동 경력 .....	40
<표 V-9>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 .....	41
<표 V-10>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악대(음악단체)에 대해 만족도 .....	42
<표 V-11> 교악대(음악단체)에 지금 필요한 것 .....	43
<표 V-12> 교악대(음악단체)에서 어떻게 기량을 향상하는가 .....	44
<표 V-13> 활동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	45
<표 V-14> 음악활동을 하는 데 대한 부모님의 반응 .....	46
<표 V-15> 부모님이 음악활동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 .....	47
<표 V-16>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관청에서 지원 .....	48
<표 V-17> 청소년기의 음악활동은 나의 미래에 필요성 .....	49
<표 V-18> 사회에 음악의 필요성 .....	50
<표 V-19> 음악활동의 제약 .....	51
<표 V-20> 장래에 대한 생각 .....	52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대에 들어 청소년 예술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경험을 한다. 이 같은 정서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런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은 인격 성숙이 덜 된 과도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창조성과 독창성을 비롯해 폭 넓은 감성과 상상력을 길러줌으로써 그들의 개성의 표출과 자기 욕구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다재다능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의 육성의 근간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음악단체의 운영 실태와 사례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음악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서는 현시점에서 청소년 음악활동과 음악단체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과 활성화 지원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의 방법

### 1) 이론 연구

제주지역 청소년 음악활동의 선행연구를 위해 우선 초·중·고교 교악대와 민간 청소년 음악단체의 설립 배경 및 활동 상황을 수집하고 청소년 음악환경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분석했다.

### 2) 설문조사

청소년의 음악활동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제주지역 초·중·고교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에서 활동 중인 단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악대 또는 음악단체 가입 동기, 현재 음악활동의 참여 실태, 음악활동에 대한 만족도, 학교 및 지도교사(지휘자)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지원 등 주요 배경을 파악한 후 분석하였다.

### 3) 사례조사

제주지역 청소년 음악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 도출 및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市立)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 음악활동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제주지역 음악의 태동 및 성장

#### 가. 해방과 6·25전쟁 전후 음악활동<sup>1)</sup>

일제시대인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 8·15 해방 이전까지 여러 소학교에서 관악대의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집합신호와 행진, 훈련 등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도 1942년에 설립된 에월보통학교 관악대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 말기부터 이뤄졌던 보통학교 중심의 음악활동은 제주초급중학교(현 제주중학교)에서 1947년 본도 최초의 9인조 중등학교 관악대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후 관악대는 각종 의식행사와 4·3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도민들에게 희망을 북돋는 한편 선무공작대 내의 절대적인 존재로 많은 활약을 했다. 더불어 관악대를 제주농업중학교 관악대(1949년) 등의 악대가 활발한 활동으로 음악의 불모지에서 도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주에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음악을 전파하고 음악경연을 열게 된 계기는 6·25전쟁으로 많은 음악인이 제주에 피난 오면서부터다. 그들 중에는 계정식, 이성재, 이성삼, 변훈, 박재훈, 김금환, 고희준 선생 등이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제주에 음악의 뿌리를 내리는데 계기가 됐다. 1952년 5월 대정읍 모슬포에 설치된 육군 제1훈련소가 주최한 전도학생 음악경연대회가 제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고, 교회에서는 피난민 학생을 중심으로 이성삼 선생이 합창단을 조직했는데 이것이 합창을 연주한 시초가 된 셈이다. 1954년에는 제주도에서 대규모 예술제가 오현고등학교 주최로 열렸는데 여기에는 음악경연도 포함됐었다.

학교 악대의 창설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음악과 교수였던 길버트(Charles E. Gilbert) 소령이 제주도 유엔민사원조처(C.A.C) 부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족적의 발전을 이뤘다. 길버트 사령관은 제주중학교와 제주농업고등학교의 교악대 활동을 지원했는데 악대가 없던 오현초급중학교에 작은북 2점과 신호나팔 6개를 기증하면서 교악대 창설을 권유했다. 길버트 사령관의 지원을 얻은 오현고등학교는 1951년에 40인조 악대를 창설하여 2년 뒤인 1953년 경남에서 열린 제4회 진주개천예술제 관악

1) 서귀포시립관악단 양경식 '제주의 관악' (삶과 문화 4호, 2002년 4월, 24~32p)

강문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 문화 6호, 2003년 6월, 66~74p)

경연대회에 첫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것은 도외 경연대회에서의 첫 입상이었다.

#### 나.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의 창설과 발전

1950년대 후반 제주여고합창단과 신성여자고등학교 합창단의 활동은 합창 음악을 활성화시켰다. 1967년 신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의 교환음악회가, 1968년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보성여자고등학교가 합동연주회를 가졌다. 1960년대에도 계속 계천예술제에 참가해 최고 입상의 성적을 거둔 오현고등학교는 독자적인 실력을 과시했다. 1964년 11월에는 진주공원에 진주개천 예술기념비를 세워 제주음악의 발자취를 새겨놓기도 했다.

1980년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음악교육과가 개설된 것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어 후진과 청소년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많은 음악지도자와 전문연주자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도내 학교 교악대도 그 수가 점차 늘면서 1982년 대정고등학교 교악대가 재일교포들의 후원으로 창단을 보게 됐고, 1983년 제주여상 교악대가 도교육의 지원으로 창단됐다. 1985년에는 제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시립교향악단(現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과 제주시립합창단(現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이 창단되어 제주도 문화예술의 주요행사를 주최, 주관하게 됐다. 1989년에는 도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창단돼 제주의 청소년 문화에 크게 기여했다. 1996년 홍콩 아·태관악제에는 제주도 고교연합악대가 참가하였으며, 1997년 제주YMCA유스오케스라, 2003년 제주청소년관악단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연주활동과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 민간 청소년 음악단체 현황

### 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 음악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청소년 음악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제주지역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장홍용 교수를 중심으로 1989년 창단됐다. 200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 법인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05년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는 역시 최초로 전문 예술단체로 지정 받았다. 정기 연주회와 청소년음악회를 비롯해 해마다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전문 강사진을 초청, 음악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또 청소년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연 4회의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우수 단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주 토·일요일 정기 연습과 함께 음악감상 등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고전음악 감상회, 색소폰 강습, 대중음악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창단 이후 국내·외에서 120여 차례 공연을 가진 데 이어 민간 음악단체이지만 전통 음악교육에도 열성을 보이면서 '제주청소년풍물단'을 창단 시키기도 했다. 음악 및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35명의 임원이 봉사하고 있으며 많은 후원 회원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이사장에 조문부(전 제주대 총장), 음악 감독 장홍용, 지휘자 장홍용·강경수·정운선, 사무국장 김형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상임이사 2명, 고문 3명, 이사 6명, 2명의 감사진 등 19명의 운영진이 있다. 각 악기별로 지도위원을 따로 두고 있으며 100여 명의 단원들이 가입돼 있다.

### 나. 제주청소년관악단

관악기를 연주하는 도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진 음악단체로서 클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을 접하게 하여 수준 높은 청소년문화활동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3년 창단된 음악단체이다. 2003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 음악회를 비롯하여 해마다 3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 8월 15일에는 재일본 거류민단본부 오사카 지부회관에서 '재일본 동포를 위한

고향사랑음악회'를 2007년 8월 7일에는 중국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서 '해외동포를 위한 한민족음악회'를 가진바 있다.

#### 다.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1997년 도내 청소년 23명으로 구성된 현악기 음악단체인 '소리샘앙상블'로 출발해 현재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미래의 유능한 음악인 지도자를 육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YMCA의 기본이념인 '보다 좋은 세상건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해마다 2회의 공연을 포함해 총 40여 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사랑과 희망축제 참가, 각종 자선음악회, 환자를 위한 병원 방문연주회 등 청소년들은 음악활동과 동시에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일본 오사카초청 연주회, 세계섬문화축제 개막연주회 등을 했으며 홍정도 선생의 지도아래 60명의 단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또 10명의 지도 및 운영위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음악아카데미 수료생을 멤버를 중심으로 '키즈앙상블'도 창단했다.

#### 라.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은 2002년 4월 제주플루트리틀앙상블로 출발해 2004년 12월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 2008년 2월 제6회 정기연주회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었으며 그동안 도내 플루트 연주단체의 특별공연과 겨울캠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플루트 전문음악단체로 성장했다. 도내 초·중·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플루트청소년앙상블은 그동안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해 왔다. 현재 음악감독은 문성집이 맡고 있으며, 지휘는 제주플루트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소영이 맡고 있다.

#### 마.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Jeju Sinfonietta)는 제주신포니에타의 자매단체로 음악으로 꿈을 키워가는 도내 초·중·고교 5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체다.

김형삼 지휘자를 중심으로 2002년 11월 창단 연주회를 연 이후 정기연주회, 작은음악회, 초청연주회에 이어 연 2회의 음악캠프를 실시해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꾀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의 비루투오즈’,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MIK 앙상블’연주회에 찬조 출연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과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제주도립교향악단과 합동연주를 가졌으며 여름축제의 일환으로 탐동에서 ‘한밤의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세 차례 특별무대를 열기도 했다.

#### 바.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는 2002년 3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부설 연주단체로 창단됐으며 2006년 1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김인규 교수의 주도 아래 도내 초·중·고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고 지역문화와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취지로 창단됐다. 1대 상임 지휘자 김인규 교수에 이어 2007년 이후 2대 상임 지휘자로 임대홍이 맡고 있다. 단원들은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실력을 닦고 있으며, 연주력 향상과 무대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솔로 연주 기회도 주고 있다. 또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 1회 이상 기획연주를 비롯해 음악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 사.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플루트앙상블

서귀포학생문화원 소속 청소년플루트앙상블은 2006년 3월 서귀포시지역 초·중학생 23명으로 창단됐다. 산남지역 청소년의 음악적 재능과 건전한 정서를 기르고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을 한 청소년플루트앙상블은 매주 주말 정기연습 이외에 각종 축제 및 음악회를 앞두고 특별연습을 하며 단원들은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2006년 1회 창단 및 정기연주회에 이어 2007년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또 합동연주 등을 통해 학생전문연주단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음악감독은 신애선, 지도강사는 박미향이 맡고 있다.

### 3.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관악대 현황

#### 가. 고등학교 관악대

##### 1) 남녕고등학교 관악대

1987년 10월 이용범 지도교사 아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5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 개발과 정서 순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교내 활동으로 매년 3월 신입생을 위한 환영 음악회와 7월 개교기념 경축으로 ‘청송 열린음악회’를 통해 연주 실력을 뽐내고 있다.

##### 2) 대기고등학교 관악대

1985년 11월 22인조로 시작했으나 연습장소가 협소해 지하실과 폐차 버스를 정비, 연습을 하는 등 처음엔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다. 1986년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에 서 첫 선을 보였으며 1989년 9월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도내에서는 첫 금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18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현재 40인조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대정고등학교 관악대

6.25전쟁 당시 모슬포에 주둔한 육군 제1훈련소 군악대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조련으로 1954년 16인조로 시작했으나 맥이 끊겼다. 1981년 재일본 대정 출신 독지가들 정성으로 44인조 관악대가 다시 태어났다. 2006년 9월 제31회 대한민국관악합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대정읍 주민들을 위해 ‘고향사랑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4)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악대

1986년 당시 동창회에서 50주년 기념 추진사업 일환으로 모금활동을 통해 36인조 관악대를 창단했다. 2000년부터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에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

#### 5)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찰스 E. 길버트 소령의 도움으로 1952년 6월에 창설됐다. 1953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4회 개천예술제(현 영남예술제) 관악 경연에 첫 출전해 최고상을 수상한 이래 1973년까지 16연승을 달성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개교기념 정기연주회는 제주도내 기악연주회의 효시로 청소년 음악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다. 1984년부터 500여 명의 관악대 동문들이 모여 시작된 동문음악회는 11회에 이르고 있다.

#### 6) 제주고등학교 관악대

제주고등학교 교악대는 1947년 강계돈 선생이 부임하면서 재일동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15인조 관악대를 창설했다. 1950년 6.25전쟁 직후 제주항에서 출정 전송행사를 가지기도 했으나 대원들이 학도병으로 출정, 해체상태에 이르렀다. 1979년 11월 이봉주 선생에 의해 재건 발대식을 가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 7) 성산고등학교 관악대

성산고등학교 관악대는 2000년 5월 동문회의 도움으로 김재용 선생의 지도 아래 창단됐으며 다양한 음악장르를 표현하기 위해 악단 구성을 Concert Band와 Jazz Big Band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2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8회 '제주 마린 콘서트'연주회를 개최했고,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활동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 8)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관악대

1997년 김성표 교장이 부임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창설됐으며, 2004년 제주관악제에 참가했다. 2005년에는 탐동 여름 해변공연장에서 연주활동과 더불어 제주국제관악제에 시가행진에 참가해 호응을 받았다.

#### 9) 제주중앙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중앙고등학교 관악대는 김충환 선생의 지도로 1979년 6월 40인조로 창단하고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3년 도내 최초로 일본 오단이고등학교와 교환연주회를 가졌다.

10)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

1983년 6월 제주시민회관에서 47인조로 창단 연주회를 갖고 같은해 9월 88인조의 Marching Band로 재편성해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체전 선두악대로 참가했다. 1986년 제36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1996년과 1998년에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주최하는 세계마칭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대만 치아이스에서 주최하는 세계마칭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세계마칭쇼챔피언십대회에 참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1) 제주제일고등학교 관악대

1971년 24인조로 편성해 제주시민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해 창단 36주년을 맞이해 정기예술제에서 연주를 했으며 학교행사를 활동으로 백호기 응원전에서도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12) 한림고등학교 관악대

1979년 3월 창단했으며 1982년 개천 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984년에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관악대 내에 현악 합주부를 창단했다.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참가했으며 한수풀 음악제 등을 열면서 꾸준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13) 영주고등학교 관악대

영주고등학교 교악대는 개인의 음악적 소질을 개발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교육 양성에 이바지하고 음악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며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제주음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용악기 20여점을 기증받고 관악부창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 부족한 악기 및 비품을 구입하여 40인조 규모의 Concert Band를 만들었으며 공식적인 창단식은 2008년 11월에 가질 예정이다.

14) 서귀포고등학교 관악대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뜻을 모은 모금운동과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지

원으로 2008년 3월 공식 창단됐다. 관악대 창단과 지도는 김홍철 선생이 맡고 있다.

#### 나. 중학교 관악대

##### 1) 제주서중학교 관악대

제주서중학교 관악대는 2006년 3월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로부터 관악기 35점을 지원받으면서 창단됐다. 같은해 8월에는 세계마칭쇼밴드챔피업십 제주대회에 참가,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연주회와 학생종합예술제,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창단부터 2007년까지 김성주 교사가 지휘를 맡고 이어 2008년부터 양기봉 교사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

##### 2) 서귀포중학교 관악대

서귀포중학교 관악대는 제주도내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중학교 관악대로 1966년 3월 10일 창단 된 이래 1974년~1976년 동안 경상남도 진주에서 개최된 개천 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에서 합주부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 및 2001년 제주관악제, 2002년 제주국제관악제기념 제주관악제 등에 참가하여 뛰어난 기량으로 많은 음악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매년 개최되는 서귀포시 지역중학교예술제 및 각종 교내 외 행사에 참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1,2,3학년 50여명으로 구성되며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개인 연주능력을 키우고 합주활동을 통하여 예술적 감수성 및 협동력을 배양하여 정서가 풍부한 인간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 다. 초등학교 관악대

##### 1) 제주광양초등학교 관악대

2007년 4월 관악부를 창단했다. 클라리넷, 트럼펫, 플룻, 색소폰 등 총 13종 51개 악기를 구입한 후 꾸준한 연습과 여름방학에 합숙훈련을 실시해 학생들이 음악과 악기 연주기능을 향상시켜 왔다. 2007년 7월 전도합주경연대회에 이어 그해 8월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했으며 12월에는 학생문화원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창단 후부터 현재까지 문기혁 교사가 관악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

## 2) 화북초등학교 관악대

화북초등학교 관악부는 2006년 제10회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제주도내의 초·중·고교의 마칭밴드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개인의 감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조기 예능교육의 실현과 개성과 협동성의 조화를 이루는 폭넓은 인성교육의 확대,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의 전통화로 학교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의 지원으로 35인조의 마칭밴드로 창단하게 되었다. 화북초등학교 관악부는 2006년 7월에 제4회 전도초등학교합주경연대회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2006세계마칭쇼챔피언십제주대회 참가하여 축제부문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경연대회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관악부의 활동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믿음을 주었으며, 동시에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Ⅲ. 제주도 청소년 음악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 1. 청소년기의 음악교육

청소년기는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의 음악교육은 그들에게 전인(全人)적인 인격발달과 더불어 조화로운 인간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 형식성, 서열성, 의존성, 획일성 등 기존의 가치관을 수용하기보다 합리주의, 다원주의, 개방주의, 개성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신세대들 또는 ‘N세대’<sup>2)</sup>라고 불리는 이들은 질풍노도와 같은 정서를 지니고 있지만 음악을 통해 자기들끼리의 욕구를 분출하고,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주역으로 대변되고 있다. 실제 그들의 음악유형은 실로 다양한데 레ιβ(Rave), 록(Rock), 랩(Pop), 레게(Reggae), 재즈(Jazz) 등은 현대에 와서 신세대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음악의 주요 고객은 청소년 그 자신들이며 신세대 음악은 그들의 정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음악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물론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그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학교내의 음악교육은 기존의 교과 위주를 중심으로 가르치거나 수업 내용을 모방, 답습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정형적인 틀에 얽매어 있어서 다양한 음악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은 음악활동을 통해 자아를 키우고 심신의 안정감을 찾고, 올곧은 인격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음악수업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임하거나 따분해 하면서 초·중·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악기 하나 제대로 연주하는 못하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와 대학 진학이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음악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급 학교에서도 음악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력과 인격 함양을 높이기보다 음악교육도 내신과 입시를 위한 점수화와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간의 음악수업과 지도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 ‘N세대’는 10~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며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터넷에 능숙한 세대를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창의력과 심미감을 부여한다. 또한 합창과 합주는 청소년들 구성원들끼리 서로 돕는 협동정신과 양보와 배려, 화목을 부여하면서 아름다운 인성을 길러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음악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제대로 된 음악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작금의 현실에서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이에 대해 현재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의 형태와 조건들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 제주도 청소년 음악문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청소년 인구 현황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인구연령을 중심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 혹은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559,258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년인구는 9세(8,219명), 10~14세(44,057명), 15~19세(36,761명), 20~24세(3,475명) 등 총 123,795명이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 나. 청소년 음악활동 추산 인구

교악대와 국악관현악단 등을 운영하는 제주도내 국·공·사립 고등학교는 총 19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 당 평균 40명의 단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음악 전공과정 대학(교)는 3개소로 평균 30~40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다. 도내 사립 음악학원 수강생은 연 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내 청소년 인구 가운데 음악 활동을 영위하거나 접했던 청소년들의 수를 대략적으로 집계해 보면, 도내 고교 교악부 단원 640여 명, 음대 재학생 360여 명, 사설 음악학원 수강생 1만여 명을 포함해 총 1만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청소년 음악인구는 대략 1만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내 청소년 전체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현황(2007)'

다. 청소년 음악단체(학교·학원) 현황

제주도교육청이 2006년 기준 음악활동을 지원한 총 24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 가야금합주단 운영학교 : 대정여고, 애월상고, 중문상고 이상 3개교.
- 국악관현악단 운영학교 : 제주중앙여고 이상 1개교.
- 취타대 운영학교 : 함덕고(前 함덕정보고) 이상 1개교.
- 국·공립고교 교악대 운영학교 : 제주제일고, 대정고, 제주고(前 제주관광산업고), 한림공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성산고(前 제주관광해양고), 제주여상, 사범대학부속고, 이상 8개교. \*서귀포고 2008년 창단
- 사립고교 교악대 운영학교 :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영주고(前 제주공고), 제주중앙고(前 제주상고) 이상 5개교.
- 초·중교 교악대 운영학교 : 광양초, 화북초(이상 초등학교), 제주서중, 서귀포중(이상 중학교)
- 관현악단 운영학교 : 제주여중

제주도내 음악전공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대학교 음악학과(4년제) : 1981년 사범대학 소속의 음악교육학과로 신설되어 중등학교 음악담당교사를 배출했으나 1987년도부터 인문대학 음악학과로 개편,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다. 1997년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이어 2005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됐다.
- 제주한라대학 음악과(2년제) : 1993년 생활음악과로 신설됐으며 2007년 3월 ‘음악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됐다.
-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2년제) : 1996년 개설됐으며 실기위주의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내 예능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4)</sup>

- 학원수 : 391개소 · 수강인원 : 1만여 명 · 강사수 : 581명 · 직원수 : 410명
- 월평균 수강시간 : 27시간(최대) · 월 수강료 : 7만5000원(최고)

4) 제주도교육청 ‘2007제주교육통계’

제주도내 청소년 음악단체(기악연주단체 중심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 제주청소년관악단 ·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 제주  
주니어신포니에타 ·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 제네스 챔버오케스트라 · 서귀포  
학생문화원 청소년플루트앙상블 등



## 2. 청소년 음악활동의 문제점

### 가. 예산에 따른 문제점

과거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유명세를 떨치던 제주도내 교악대의 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교육당국의 협조 미흡, 학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인식부족 등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각급 학교의 과외활동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교악대가 해체됨은 물론 일부 학교에선 주요 연주행사가 개교 기념 및 백호기 축구대회에 응원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전국 관악밴드 300여 개 가운데 전국 1%인 제주도에 20개 관악대 및 밴드단체가 활동하는 등 음악에 대한 도민들과 학생들의 열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작금에 와서 행·재정적 지원이 빈약해 일부 고교 교악대는 새 악기 구입에 있어 국고지원 이외에 동문들의 적잖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당국의 예산지원도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악기를 운영하는 교악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편성에서 학예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교악대를 운영하는 제주제일제일고, 대정고, 한림공고 등 8개의 국·공립 고등학교와 4개의 사립 고등학교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다.<sup>5)</sup> 반면 방과 후 교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광초등학교인 경우 연간 운영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면서 도내 고교 교악대 1년 행사 운영비의 10배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비교가 되고 있다. 또한 관악대의 발전을 위해선 악기의 구입과 교체, 수리 및 부품구입 등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관악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중고 악기의 교체는 물론 새 악기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각종 대·내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경비가 부족해 주위에서 도움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9월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제31회 대한민국관악합주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금상을 수상한 대정고등학교인 경우 대회 참가를 위해 총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교통비와 숙식비, 체류비 등은 행정당국(옛 남제주군)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도내 고교 교악대가 재정적인 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면서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닦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데도 적극적

5) 제주도교육청 2006년도 예산편성 현황

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급 학교, 특히 인문계 고교인 경우 입시위주의 수업 편성으로 교악대 단원들은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연습을 하는 형편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활동을 보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나. 운영과 활동의 문제점

도내 고교의 관악대 운영에 있어서 악기의 구입과 교체, 수리 및 부품구입과 안정적인 운영자금의 필요성을 앞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교악대의 폭 넓은 활동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자(재단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고충해결이 우선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데 따른 예산확보가 연속적이지 않고 매년 할당된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교악대를 이끌어 가는 지도교사는 정규 수업시간 이후인 오후 5시 이후 지도를 해야 하는 애로와 함께 주당 평균 20시간 할당된 교과 시수를 소화하고 각종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서 평소에는 교악대 단원들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를 못하고 동·하계 방학기간 중 합숙캠프를 통해 단원들의 실력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계 고교인 경우 교악대 활동은 실업계 고교보다 오히려 열악하고 위축돼 있다. 이는 단원들이 연습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철저한 대입에 맞춰 교육방향이 쏠려 있다보니 음악전공을 하지 않는 단원들인 경우 일반 교과목에 더욱 열중해야 하며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역시 음악활동 보다 국어, 영어, 수학 성적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2006년 기준 도내에서 열린 기악연주회<sup>6)</sup>에 도내 12개 고교 교악대가 학교명을 걸고 공연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연주는 불과 4회에 불과했다. 공개 연주회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제8회 동문음악회(5월 12일), 오현음악제(9월 26일), 교악대 창단 30주년 제상음악제(11월 28일), 제주관광해양고(現 성산고) 마린콘서트밴드 제7회 정기연주회(12월 27일) 등 이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기악 활동의 저변확대와 악기 지원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 2006년 제주에서 열린 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에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의

6) 제주문화예술재단 발행 '2007 제주문예연감'

관악기 지원으로 제주화북교와 제주서중학교 관악대가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조직위는 체면치레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도내 초·중·고교 관악대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고등학교는 무려 14개에 이르는 등 관악대 구성과 편성이 역 피라미드의 기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10대 초반 청소년들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깨우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IV. 문제의 해결 방안

### 1. 행정·재정적 해결 방안

가. 청소년 음악단체의 道立·市立화 필요성

#### 1) 전국 市立청소년교향악단 현황 및 운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세대 음악도를 발굴·육성해 음악 엘리트를 키우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음악 향유의 기회를 늘리고자 전폭적인 예산(지방세)을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4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인격창조에 의의를 두고, 오케스트라 연주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1984년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 창단하였다. 그 후 1994년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으로, 1999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단원들은 중·고·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창단 이후 연 2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지방도시 순회공연 등의 특별연주회, 실내악 연주 등을 개최하면서 전문적인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성장해 왔다. 1987년 서울올림픽 문화사절단으로서 하와이에서 첫 해외 연주회를 가졌으며, 1991년 3월에는 미국 카네기홀 창립 100주년 기념공연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일본 순회공연을 하였다. 1988년부터 객원 지휘체제를 도입하였다. 초대 지휘자는 박은성이고, 1993년 4월 제2대 상임지휘자로 김종덕, 1999년 9월 제3대 상임지휘자로 장운성, 2000년 4월 제4대 상임지휘자로 박태영이 맡고 있다.

#### 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 정서 함양 및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4년 창단됐다. 초대 지휘자 이철

수에 이어 지난 1996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출신 윤상운을 제2대 지휘자로 영입하여 체계적인 연습 스케줄을 확립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매년 10여회의 정기 및 특별 연주회를 가짐으로써 우수한 아마추어 교향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주자들을 지도위원으로 선정하여 앙상블 능력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여름 기량 향상 훈련을 가짐으로써 단원 개인의 기량 향상도모는 물론 화합을 다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단원 협연 무대 및 앙상블 무대 등 다양한 특별 연주회를 통해 선보임으로써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청소년 교향악단 현악 앙상블팀이 일본 대마도의 '신세기 우정의 음악제'에 초청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펼쳤다. 현재 지휘자는 윤상운이 맡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하는 80여 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다.

#### 다)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발전 및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2001년 창단됐다. 엄격한 오디션을 거친 우수한 음악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4관 편성 110여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단 이래 매년 '세계음악여행 시리즈'로 호평 받아 온 정기연주회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온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상과 함께하는 팝스 콘서트'등의 기획연주, 단원들에게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협주곡연주, 해마다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음악캠프, 지방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 등을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3년 KBS공연실황방영 그리고 2004년 세계어린이합창제 개·폐막식 및 2005년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 축제를 통해 과천시 음악예술문화를 선도하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2005년에 이은 말러 교향곡 2번 '부활'로 2006년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창단 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계에서 그 기량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현재 지휘자는 박찬욱이 맡고 있다.

#### 라)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00년에 창단됐으며 부산·경남 등 지역 아마추어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연주를

펼치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질적 우수성을 선보이며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운영팀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통합 운영하면서 뛰어난 기획성과 빠른 추진력을 통한 최상의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구조를 갖추게 됐다. 내부적으로도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청소년단 지휘자로, 수석단원을 트레이너로 겸직 운영하게 함으로서 단원의 기량 향상은 물론 앙상블 연주 지도를 통한 음악적 완벽한 조화로 수준있는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와 ‘앙상블의 밤’ 특별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청소년교향악단’의 야외 예술무대 등 참신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울산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현재 지휘자는 김종규가 맡고 있다.

이들 4개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대표성과 위상을 알리기 위해 2006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회 전국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간의 음악적 벽을 허물고, 서로의 연주를 통해 배움과 교류의 장을 열어줄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 나. 제주道立(市立)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의 필요성

위의 사례처럼 시(市)가 주체가 돼 창단된 이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악기 구입은 물론 지휘자, 강사진에 대한 보수는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음악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과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시가 주도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을 꾸려가면서 정기연주회와 더불어 공연과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사전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 다수의 청소년음악단체이 보여 왔던 영세성을 탈피했고, 더불어 체계적인 지도와 지원으로 음악 꿈나무를 성장 가능한 음악인으로 길러내고 있다. 물론 이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서울, 부산, 과천, 울산 등 인구가 많은 곳은 물론 각종 세수(稅收)가 많고 시 당국 역시 재정도가 높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2개의 시와 2개의 군이 통합되면서 인구나 예산 면에서 통합 구조를 방대한 인력과 예산<sup>7)</sup>을 운영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 분리와 행정업무 편의 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를 갖추고 있다.

7) 제주특별자치도 2008 예산안은 2조4723억원(일반회계 1조9791억원, 특별회계 4932억원)

이에 따라 제주도립 또는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의 창설은 예산 규모가 커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론이 형성될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문화예술은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보이지 않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청소년교향악단이 본격 활동할 경우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장래에 촉망받는 음악 학도를 길러내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무대에 설 수 있는 국제적인 연주자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국제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 걸 맞는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

제주도립청소년교향악단 창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운영과 공연활동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주문화예술재단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구용역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추정)는 <표Ⅳ-1>에 나타난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Ⅳ-1>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산편성

(과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2002)

(단위 : 원)

항목	금액	세부내역
인건비	18,6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 지휘자(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겸직인 경우) 260,000원(예능수당)×12월=3,120,000원 160,000원(직책수당)×12월=1,920,000원</li> <li>· 비상임 지휘자 600,000원(수당)×12월=7,200,000원</li> <li>· 비상임 사무국장 1인×430,000원×12월=5,160,000원</li> <li>· 단원 1인×100,000원(교통비)×12월=1,200,000원</li> </ul>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지휘자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li> <li>· 단무장 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li> </ul>
활동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단원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대학생 단원에 한함)</li> <li>· 우수단원에게 오케스트라 협연의 기회제공</li> <li>· 방학 중 음악캠프 및 마스터클래스 개최</li> </ul>

<표Ⅳ-1>에서 나타난 예산안은 제주지역에 맞게 적이 조정이 가능 할 것이다. 단원들의 활동특전 -음악캠프 및 마스터클래스 운영, 연주수당 지급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기공연 등에 필요한 홍보비(인쇄, 광고 등)와 대관료, 식비 등의 운영비 또한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다. 청소년 음악단체 활동 공간 확보와 지원

앞에서 기술하였던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단체들은 해마다 일정 임대료를 지불하여 연습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몇몇 단체들은 월별로 회비를 징수하여 재정적인 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며 어떠한 단체들은 임원들이 대부분의 재정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연습실 공간을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시설들을 보수하여(방음 및 흡음)무상으로 임대하여주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다. 현재 청소년단체들의 년 연습실 임차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표Ⅳ-3>와 같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음악단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첫째 제주시 19개 동 사무소에 마련된 주민센터를 행정당국이 적극 개방해야 할 것이다. 주민센터는 통·반장 회의 또는 비정기적으로 문화강좌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일주일에 1~2회는 청소년 음악활동 공간으로 충분한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행정·교육당국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이 우선 요구된다. 이 공간은 음악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비보이(댄스), 영화상영, 그림 전시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창작활동과 욕구 분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 음악단체가 영세한 점을 비취 볼 때 제주도에서 상근 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예 새마을회 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 도지부, 제주도청년회 등)처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 일정 부문 보조를 받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표Ⅳ-2> 청소년 연주 단체별 연습실 임차료 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구분	규모	단원수	금액	비고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년	45평	72명	4,500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년	50평	30명		YMCA건물 무상임대
제주청소년관악단	년	42평	70명	5,000	

## 2. 문화적 해결 방안

### 가. 청소년 음악캠프를 연계한 페스티벌을 통한 해결 방안

청소년들이 정규 수업인 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적성과 능력을 최단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각종 캠프활동이다. 캠프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기영어 열풍이 불면서 초·중·고교 청소년들이 영어권 국가를 단기간 머물며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영어캠프’이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돈을 들이면서 영어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참가하지 않은 청소년들간 영어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영어캠프에 참가한 경험과 체험은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가 부각되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금융권에선 ‘경제캠프’를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 도내 각급학교와 음악단체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맞춰 실시하는 ‘음악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음악캠프는 대개 여름방학에 집중되고 있는데 짧게는 4박5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학교 음악실 또는 수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학교 측에서 음악캠프 실시에 따른 강사로 등의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강당이나 기숙사 등 학생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음악캠프를 할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지원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출발하면서 합숙을 하는 동안 전문 음악 강사로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각급 학교 교악대에서 음악캠프를 열게 되면 졸업한 후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한 선배들의 무보수 지원에 의해 대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초·중·고교 교악대 및 민간 음악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음악캠프를 행정·교육당국이 나서서 숙박시설 및 강사 사례비 등을 모두 지원할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음악캠프를 여름 음악 페스티벌에 접목해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도 여름인 8월에 제주국제관악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해변공연장 및 제주도문예회관, 서귀포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에서 순회 연주회를 열어 섬 전체를 관악의 선율로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시는 해마다 7월 제주해변공연장에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를 열면서 도내 기악, 합창, 무용, 국악, 대중예술 등 다양한 무대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여름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각급 학교 교악대와 음악단체도 이 시즌에 맞춰 페스티벌을 참여하는 부대조건 아래 음악캠프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지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순회 연주회를 할 경우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음악과 예술의 향유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들도 이 기간 음악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뮤직) 페스티벌은 제주도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높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 예술문화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음악캠프와 페스티벌을 접목한 청소년 음악캠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름철 청중들 대부분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음악 페스티벌을 피서지와 휴양지에서 여는 것이 바람직 한데 청소년들도 여름방학을 맞아 일정기간 피서지와 휴양지에서 머물면서 음악캠프를 갖는 한편 동시에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할 경우 참가 학생은 물론 관광객들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과 사업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무료로 연주회(뮤직 페스티벌)를 갖는 대신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기량을 연마하고 수준 높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 강사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둘째, 여름철 피서지나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청소년들 음악캠프에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으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일정기간 빌려서 장소를 마련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피서지가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청소년 음악캠프와 페스티벌을 열 경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인 협력이 예상되며, 특히 음악문화를 접하기 힘든 농·어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교양 강좌를 열 경우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음악캠프를 여름 음악 페스티벌에 접목해 실시하는 방안의 좋은 예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주최로 제주국제관악제 기간(매년 8월 12~20일)동안 청소년 여름 음악캠프를 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정착되면서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탐동해변공연장, 한라아트홀, 서귀포천자연야외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에 접목해 청소년 음악캠프를 이 기간에 개최할 경우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면서 성공적인 청소년 음악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메세나 운동을 통한 해결 방안

‘메세나’<sup>8)</sup>란 고대로마 제국시대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등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에서 유래한다. 1967년 미국에서 기업 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쓴 이후,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협회를 설립하면서 메세나는 기업인들의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한다.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도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가 음악과 연계한 메세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07년 4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과 기업체, 언론계, 금융계, 문화예술단체등이 참여하여 메세나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 창립을 하고 여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들을 연결하여 주고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발전을 위해 총회-이사회-회장-사무국-감사의 체계적인 조직체를 구성했으며, 창립 당시 준비위원장은 정경득 경남은행장이 맡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과 운영을 본격 개시하게 됐다. 경남메세나협회와 연결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8) 두산백과사전 참조, 네이버(<http://100.naver.com>)

#### 1) 경남스틸(주)-마산관악합주단

경남스틸은 2004년 중소기업 최초로 문화관광부로부터 ‘메세나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익의 10%를 환원한다는 경영원칙 아래 각종 장학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한 기부사업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경남재즈오케스트라와 마산관악합주단 등을 후원하고 있다. 마산관악합주단은 27년의 오랜 경력을 가진 경남최대 규모의 관악합주단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연주단체로 경남스틸과 연계한 메세나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 2) 경남은행-경남오페라단

경남은행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3년 연속 대한민국 가치창조경영 대상을 수상한 영남지역의 대표은행이다. 지방은행 최초의 공익법인인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 및 사회 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메세나의 선도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오페라단은 경남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오페라단으로 경남은행이 메세나운동을 통한 꾸준한 지원으로 각종 공연과 정기연주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3) STX조선(주)-경남팝스오케스트라

2007년 현재 세계 5위의 조선소로 LNG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치 대형선을 건조하고 있다. 진해·부산 조선소-중국 대련 조선소와 연계해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1사 1학교 자매결연 및 메세나운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경남팝스오케스트라는 2000년 설립됐으며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 수준 높은 연주력을 바탕으로 매년 도내 시·군지역 순회 공연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으며 클래식과 팝의 만남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레퍼토리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민간 음악연주단체인 경남팝스오케스트라의 만남을 통해 음악인들의 연주활동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후원으로 경남팝스오케스트라는 연주회와 공연을 꾸준히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4) 무림페이퍼(주)-진주챔버오케스트라

무림페이퍼는 1956년부터 국내 제지산업을 이끌어 온 특수지 전문기업으로 진주공장은 캘린더와 제품 카탈로그 등 고급 인쇄물을 쓰이는 연간 55만톤의 아트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1위이며, 아트지 시장 점유율 역시 국내 30%로 업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진주챔버오케스트라는 1996년 창단됐으며 청소년과 전문연주자를 위한 협주곡의 밤, 작곡가들과의 만남을 위한 창작가곡의 밤, 성악가들과 함께 하는 아리아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연주하고 있다. 상임지휘자 심재화와 35명의 전문연주자들은 무림페이퍼의 지원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테마별 기획음악회 등을 열고 있다.

#### 다. 제주의 음악단체를 위한 메세나 운동 확산 방안

대기업이 없는 제주지역인 경우 ‘기업과 문화예술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메세나 운동을 보급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주지역 제조업체<sup>9)</sup> 수 2031개 가운데 5인 이상 제조업체는 불과 19%인 385개에 불과한 것에서 그 사정을 대변할 수 있다. 즉 도내 제조업체 81%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체가 영세하고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음악 및 문화예술단체들은 문예진흥기금지원제도와 무대공연지원제도를 통해 공연비와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제주문화예술인들 대부분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예술인실태조사<sup>10)</sup>를 감안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사회에서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고, 교악대를 후원하는 동문들이나 민간 음악단체를 돕는 후원자들이 있기에 현재의 음악활동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앞장서서 제주문화사랑기부사업과 제주메세나협회의 설립을 위해 여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사랑기부에는 순수기부, 조건부기부, 실명제기부, 원금보장형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식이 있으며 그에 따르는 세제혜택도 보장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인과 후원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메세나협회의 설립을 통한 ‘메세나’는 문화예술단체들에게는 안정적인 단체운영과 창작활동

9)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2007)

10)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제주시지부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117명 실태조사 결과(2004)

을, 기업들에게는 문화예술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활동을 각각 가능하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윈-윈(Win-Win)’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11)</sup>

이와 관련 제주지역 주요 기업체(公社, 公企業 포함)들의 예산과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결연을 맺는 등 아름다운 사회공헌인 메세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는 결코 빈약한 상황은 아니다. 이들 주요 기업체는 장학 사업은 물론 ‘1사 1촌 자매결연’으로 도내 농촌 마을에 그동안 꾸준한 지원을 벌여 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메세나를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의지와 기업체 역시 도내 예술단체를 장기적으로 후원하는 사회공헌의 의지가 있을 경우 제주메세나협의회 설립도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내국인면세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예산은 3723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대표 포털사이트로 꼽히는 (주)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이 2004년 제주로 이전했으며, 반도체설계업체로 상장기업인 이엠엘에스아이(EMLSI) 본사 제주이전과 맞물려 제주에서도 메세나를 보급, 확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여기에 먹는 물 시장에서 3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주)한라산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계, 건설업계, 골프장 등 관광업계 등이 참여할 경우 제주메세나협의회 창설과 도내 음악 및 예술단체의 지원은 제주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여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과 예술의 만남’인 메세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실력 있는 젊은 음악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면서 향후 제주의 음악문화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인 경우 메세나 운동에 ‘매칭펀드’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의사회, 라이온스클럽 등 민간단체와 개인도 메세나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메세나운동을 처음으로 확산한 경상남도인 경우 중소기업들이 최저 500만원에서 최

11) 김석범 ‘제주문화사랑 기부운동 참여를 기다리며’, 『제민일보』, (2006.1.26)

고 3000만원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경우 경상남도 역시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1대 1 비율로 꼭 같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체와-지자체가 매칭펀드의 수혜를 받는 문화예술단체는 최고 6000만원(기업 3000만원:경상남도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도 민간단체와 개인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매칭펀드사업을 벌이면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개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 V. 설문조사 및 통계

### 1. 설문대상

본 설문은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악대 및 청소년음악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학생 및 단원은 134명이고 문항 수는 총 20문항이다.

### 2. 문항구성

본 연구의 설문작성은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함께 공연 및 연주활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교악대와 청소년 음악단체의 발전과 교육 행정당국의 관련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구성 내용과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 발전 방안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와 음악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들의 음악적 성향과 올바른 음악교육 재정립은 물론 각 교악대와 음악단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대내·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소신껏 답해 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설문지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는 다른 곳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국립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장 문 희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거주지역은?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동제주지역 ④ 서제주지역

3. 귀하의 연령은?

- ① 9~12세(초등교) ② 13~15(중학교) ③ 16~18(고등학교) ④ 19세 이상(대학)

4.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 ① 공립학교 ② 사립학교 ③ 국립학교

5.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악기는?

- ① 내 것이다(개인악기) ② 학교 또는 음악단체 것이다  
③ 악기점등에서 대여한 것이다.

6.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악기는?

- ① 현악기 ② 관악기 ③ 타악기 ④ 전자악기

7. 여러분의 음악활동 시간은?

- ① 하루 8시간 이상 ② 하루 1~3시간 ③ 2~3일에 한번 ④ 일주일에 한번  
⑤ 거의 연습 안 한다 ⑥ 공연을 앞두고 연습 한다 ⑦ 기타( )

8. 현재 음악활동을 한 경력은?

- ① 1년 미만 ② 2~3년 정도 ③ 3~5년 정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9. 교악대 또는 음악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 ① 전문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② 음악이 좋아서  
③ 지도교사 또는 선배의 권유로 ④ 부모의 권유로

10. 현재 교악대(또는 음악단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하고 있다 ②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1. 현재 교악대(또는 음악단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 ① 지도교사의 수준향상과 지도개선 ② 악기별 전문지도 강사 지도  
③ 노후악기 교체 및 악기 수리 ④ 연습 공간 및 연습 시간 확보  
⑤ 학교 또는 음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변화

12. 교악대와 음악단체에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 ① 지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② 외부강사를 초청해 배우고 있다  
③ 선배로부터 배우고 있다 ④ 학원 또는 개인지도를 받고 있다  
⑤ 혼자 독학하고 있다

13. 교악대와 음악단체에서 활동에서 불편한 점은?

- ① 지도교사의 성의 없는 지도                      ② 악기별 지도강사의 부족
- ③ 방음시설 부족 및 연습 공간 부족            ④ 낡고 오래된 악기

14. 현재 음악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 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준다
- ② 찬성은 하나 금전적 지원(레슨비, 관련도서구입비 등)은 없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대 한다

15. 14번 질문에서 ③번(그저 그렇다)과 ④번(반대한다)를 택한 경우에만 이 질문에 대답하세요. 부모님께서 음악활동을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그 이유는?

- ① 상급학교진학에 지장이 있어서                ② 금전적 지원이 어려워서
- ③ 교육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④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 ⑤ 음악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6. 현재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관청에서 지원(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지원을 받고 있다                                      ②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17. 청소년기의 음악활동은 나의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필요하지 않다

18.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음악의 필요성은?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19. 현재 음악활동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제약을 받는 것은?

- ① 부모들의 반대                                      ② 악기구입비 또는 과도한 레슨비용
- ③ 음악을 한다는 주위 편견과 오해                ④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고민

20. 음악활동을 하면서 장래에 대한 생각은?

- ① 전문 음악인(연주가)이 되고 싶다
- ② 음악활동을 하지만 음악과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
- ③ 음악교사가 되고 싶다
- ④ 음악관련 직종에 일하고 싶다(음악학원, 음악기획사 등)
- ⑤ 음악을 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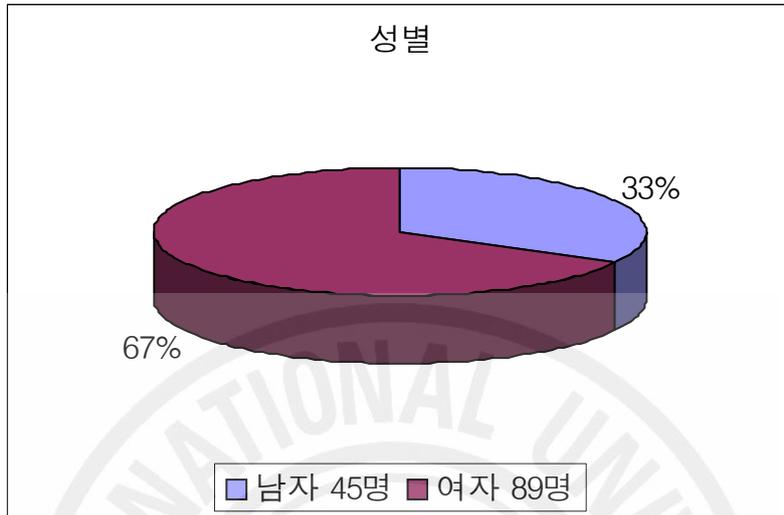
### 3. 설문결과 및 분석

청소년 음악단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200장의 설문지를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에 배부하고 20문항에 대해 물은 결과 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 134장(명)을 회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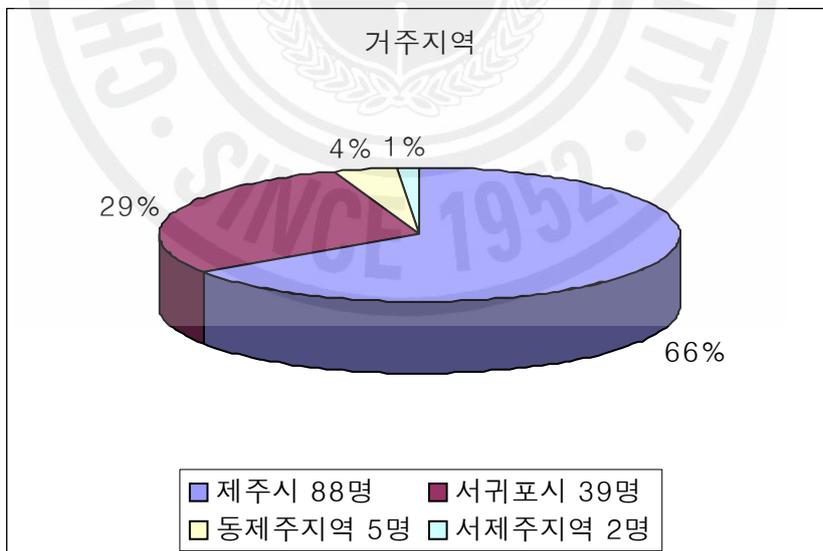
설문 응답자의 성별 구분은 여자가 89명(67%)으로 남자 45명보다 많았고 응답자의 거주지는 제주지역이 88명(66%)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고교 재학 나이인 16~18세가 90명(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15세 27명(20%), 초등생인 9~12세 11명(8%), 대학생인 19세가 6명(4%)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공립학교가 114명(8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악기 소유 여부를 보면 응답자 1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명(54%)이 학교 또는 단체 소유 악기를 빌려 쓰면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파트별로는 관악기 77명(58%), 현악기 47명(35%), 타악기 10명(7%) 순으로 집계됐다. 연습시간 현황을 보면 하루 1~3시간이 77명(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3일에 한번 연습한다는 응답자가 20명(15%), 하루 8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는 응답자가 13명(10%)에 이르렀다. 음악 활동 경력은 2~3년이 56명(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1년 미만도 44명(33%)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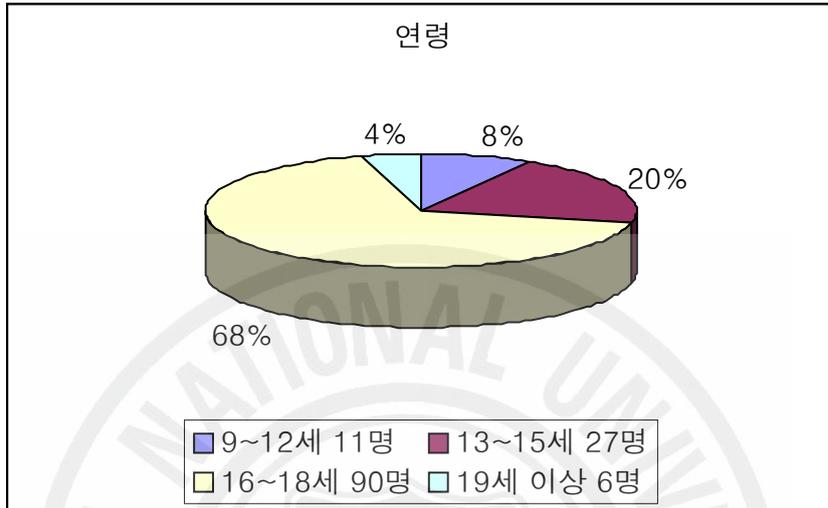
<표 V-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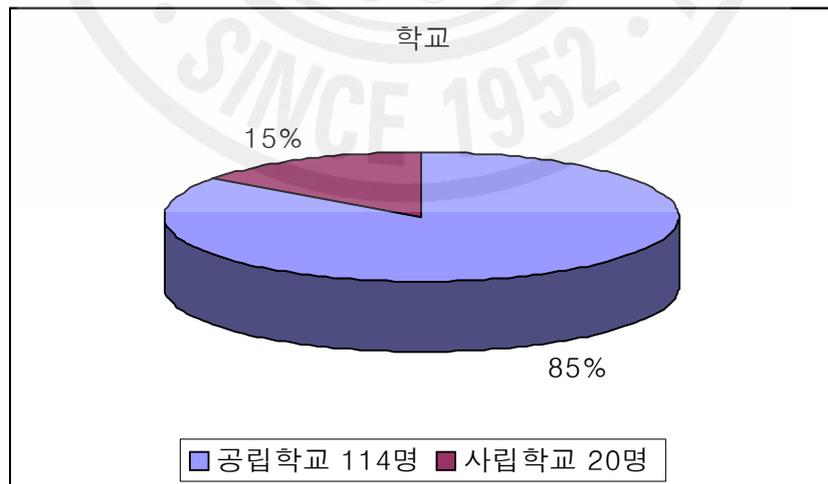
<표 V-2>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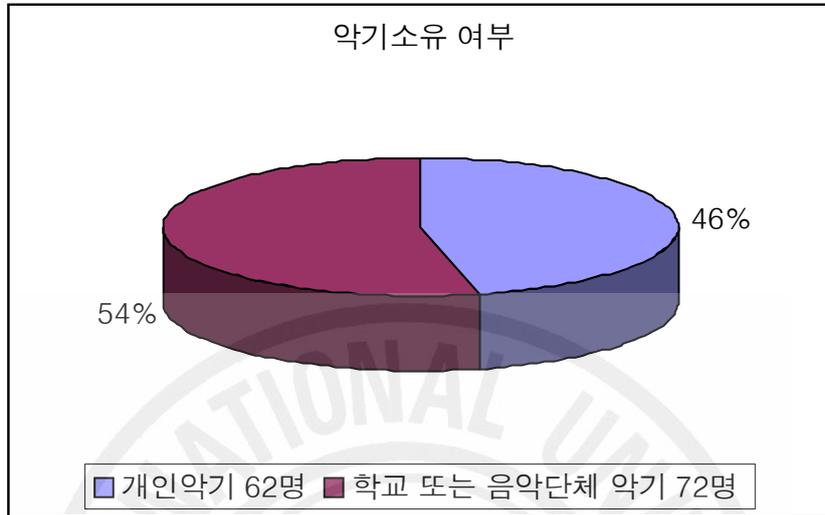
<표 V-3>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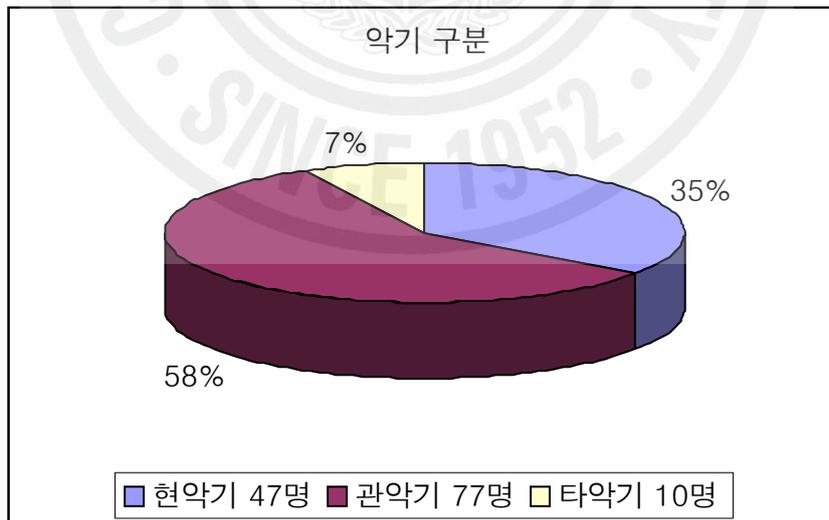
<표 V-4>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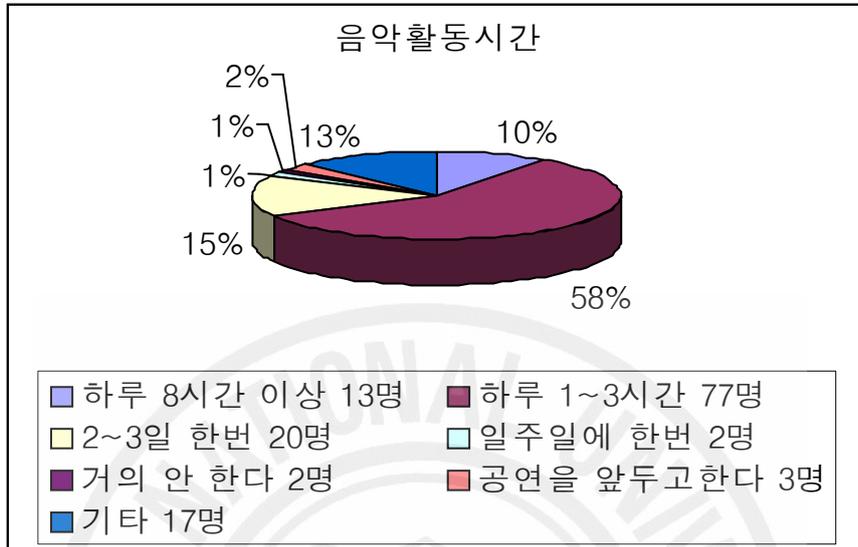
<표 V-5> 악기소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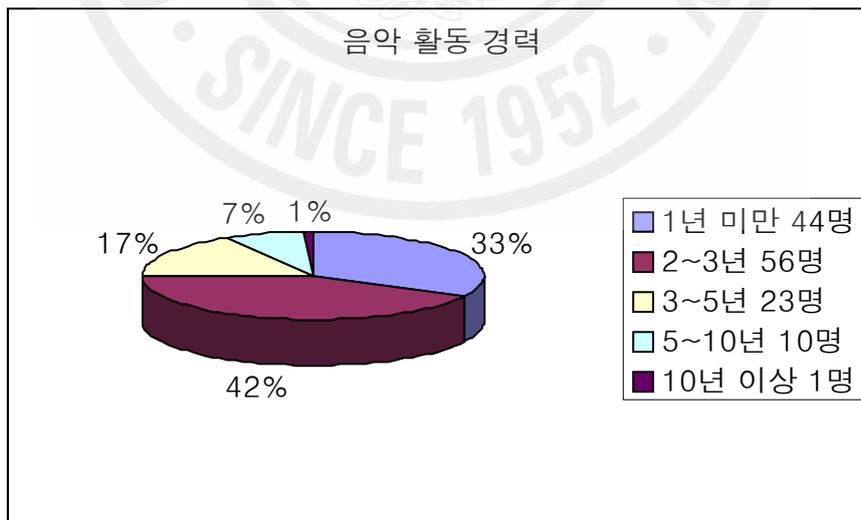
<표 V-6> 응답자들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종류



<표 V-7> 음악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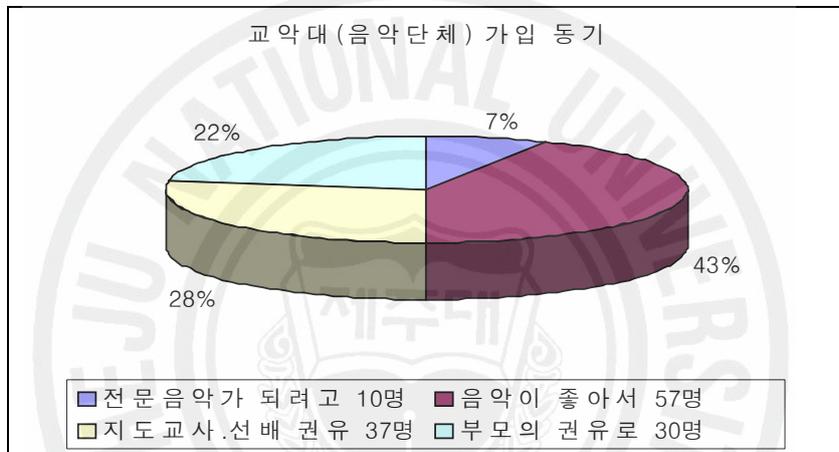


<표 V-8> 음악 활동 경력



<표 V-9, 질문 9번 문항>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구분	인원(명)	비율(%)
전문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10명	7%
음악과 악기가 좋아서	57명	43%
지도교사 또는 선배의 권유로	37명	28%
부모의 권유로	30명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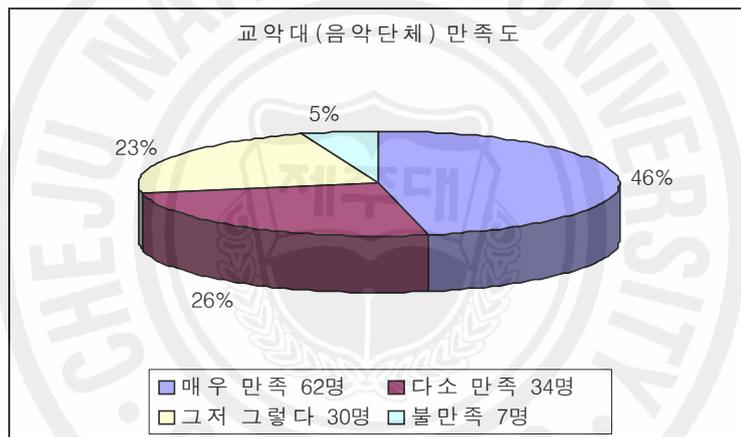


<표 V-9 분석>

청소년들이 음악활동 계기에 대해 43%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라는 답변을 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음악을 선택하면서 예술적 끼를 표출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하는 데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지도교사 또는 선배를 통해 음악에 입문한 청소년들도 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부모의 권유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도 22%를 차지하면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 음악활동을 영위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전문음악가’가 되려는 청소년들은 7%에 머물면서 미래의 주역들을 전문음악가로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함께 유럽 등 선진국처럼 음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풍토와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질문 10문항>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악대(음악단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만족하고 있다	62명	46%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34명	26%
그저 그렇다	30명	23%
불만족스럽다	7명	5%
매우 불만족스럽다	1명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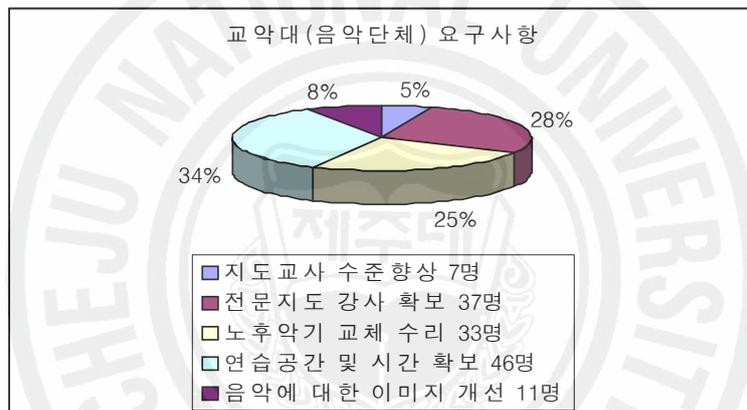


<표 V-10 분석>

고교 교악대 및 음악단체에 가입한 청소년 대다수(46%)는 현재의 음악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교악대나 음악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성취감을 높이고 있으며,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왕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만족한다는 의견과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각각 26%, 23%가 나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질문 11문항> 교악대(음악단체)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인원(명)	비율(%)
지도교사의 수준향상과 지도개선	7명	5%
악기별 전문지도 강사 지도	37명	28%
노후악기 교체 및 악기 수리	33명	25%
연습공간 및 연습시간 확보	46명	34%
학교 또는 음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변화	11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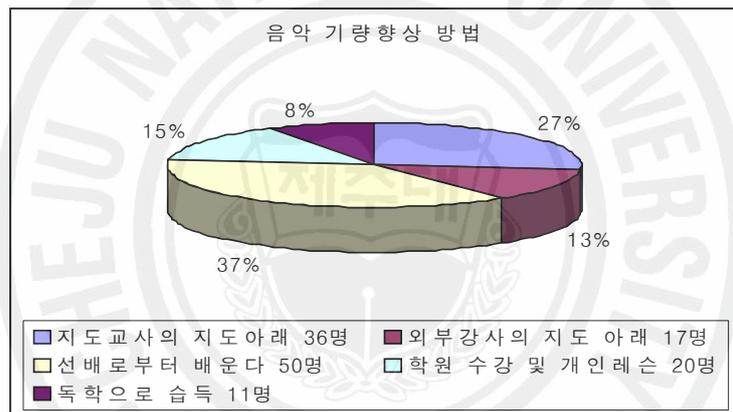


<표 V-11 분석>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소속 교악대와 해당 단체에 가장 바라는 점은 연습공간, 즉 창작과 연주를 할 연습실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악기를 연주할 공간이 부족하면서 결국 실력 연마와 기량 향상을 힘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음악 레슨을 전문 지도하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28%에 이르면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음악 강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교악대와 음악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 응답자 25%는 지금 당장 음악활동에 있어 필요한 것은 ‘노후 악기’ 수리와 교체라고 답변했다.

<표 V-12, 질문 12문항> 해당 교악대와 음악단체에서 어떻게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구분	인원(명)	비율(%)
지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36명	27%
외부 강사를 초청해 배우고 있다	17명	13%
선배로부터 배우고 있다	50명	37%
학원 또는 개인지도를 받고 있다	20명	15%
혼자 독학하고 있다	11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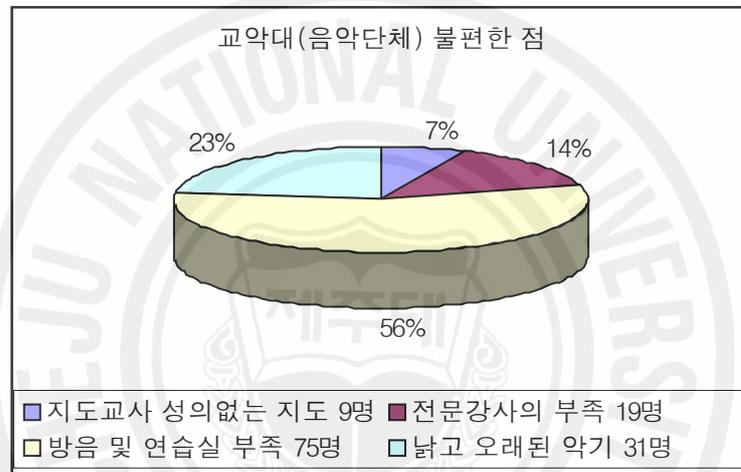


<표 V-12 분석>

청소년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량을 향상하는 데 있어 다수의 응답자인 37%가 선배로부터 배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교악대와 음악단체에서 지휘자 1명이 지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선배로부터 음악지도를 받으면서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질문에서 밝혀졌다. 이어서 응답자 27%는 교악대를 이끌어 가는 지도교사의 지도로 음악적 소양을 닦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강사 지도는 13%, 학원 및 개인레슨은 1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도교사나 전문 강사의 사사 없이는 실력을 높이기 어려운 데도 응답자 8%는 홀로 독학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표 V-13, 질문 13문항> 교악대와 음악단체의 활동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구분	인원(명)	비율(%)
지도교사의 성의 없는 지도	9명	7%
악기별 지도강사의 부족	19명	14%
방음시설 부족 및 연습공간 부족	75명	56%
낡고 오래된 악기	31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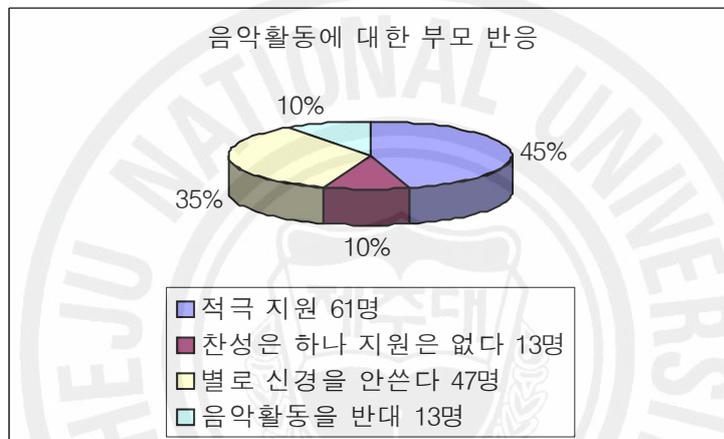
<표 V-13 분석>

교악대와 음악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56%는 방음시설이 없는 연습실과 연습공간의 부족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실제 이번 연구조사에서 교악대 연습실이 지하실에 있거나 가건물로 지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즉 음악문화 공간의 부족과 낡은 시설은 결국 청소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음악적 성취감을 높이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악기 수령 역시 내구연한을 지난 낡고 오래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23%로 조사되었으며, 악기 그 자체 문제만으로도 음악을 영위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14%는 각 악기별 전문 강사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연주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질문 14문항> 현재 음악활동을 하는 데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구분	인원(명)	비율(%)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준다	61명	45%
찬성은 하나 금전적 지원(레슨비, 관련도서구입비 등)은 없다	13명	10%
그저 그렇다	47명	35%
반대 한다	13명	10%



<표 V-14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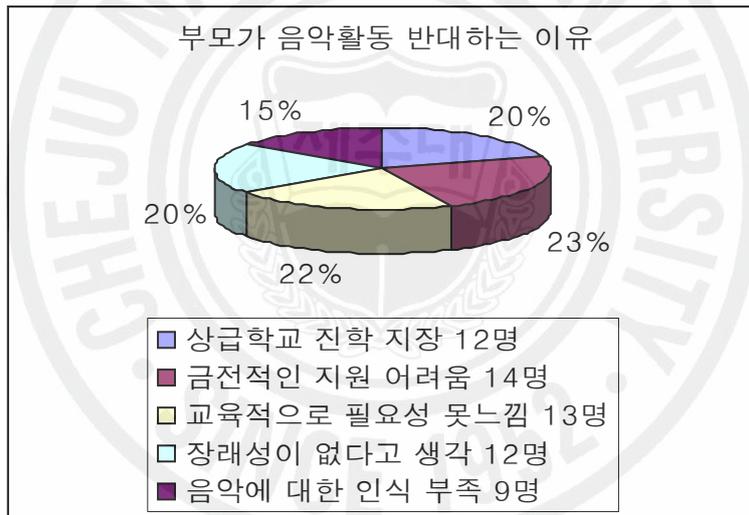
음악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 여부에 대해 45%의 청소년들이 현재 음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들의 음악활동에 대하여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가 있음은 청소년들이 예술적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음악활동에 필요한 악기를 포함해 레슨비용, 행사 참가비 등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자녀들이 다재다능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음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응답자인 35%는 음악활동을 하는 데 부모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혀 자녀들의 다양한 예술 욕구와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음악활동에 대해 찬성을 하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부모도 10%에 이르고 현재 활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모도 10%에 이르면서 부모들이 인식 개선과 함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5, 질문 15문항> 부모님이 음악활동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이 질문은 14번에서 ③번과 ④번을 선택한 60명을 대상으로 함.

구분	인원(명)	비율(%)
상급학교진학에 지장이 있어서	12명	20%
금전적 지원이 어려워서	14명	23%
교육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13명	22%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2명	20%
음악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9명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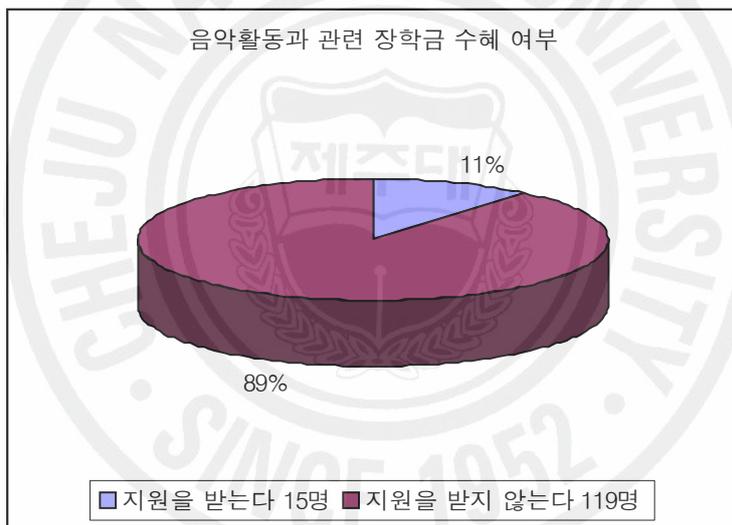
<표 V-15 분석>

부모들이 음악활동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또는 음악활동에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 60명에 대해 ‘음악활동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인 23%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의 음악활동에 소극적이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22%는 음악활동이 교육적으로 자녀의 미래와 아무런 필요성이 없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고, 아울러 상급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에 음악활동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을 빼

있는 활동으로 여기는 부모도 20%에 이르면서 기성세대들의 음악활동과 음악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 간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청소년 음악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음악활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사회분위기 조성 과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6, 질문 16문항> 현재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관청에서 지원(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구분	인원(명)	비율(%)
지원을 받고 있다	15명	11%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119명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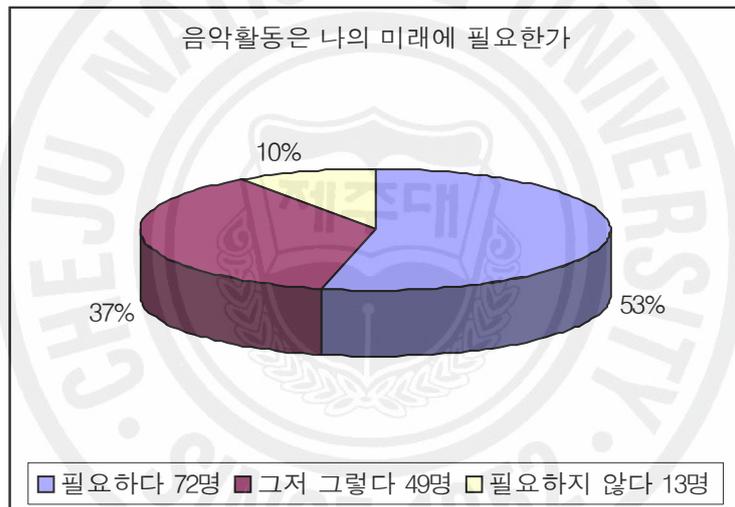
<표 V-16 분석>

음악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행정 및 교육당국, 기업체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유망한 음악가를 배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고른 배움의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면서 미래 사회의 음악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음악 예술 향유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학금 수혜의 현실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장학금 수혜 학생은 전체 134명 가운데 불과 11%인 15명에 머물렀다. 음악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및 정책당국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사회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활동하며 제주도를 빛날 음악 인재를 육성하는 크나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표 V-17, 질문 17문항> 청소년기의 음악활동은 나의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인원(명)	비율(%)
필요하다	72명	53%
그저 그렇다	49명	37%
필요하지 않다	13명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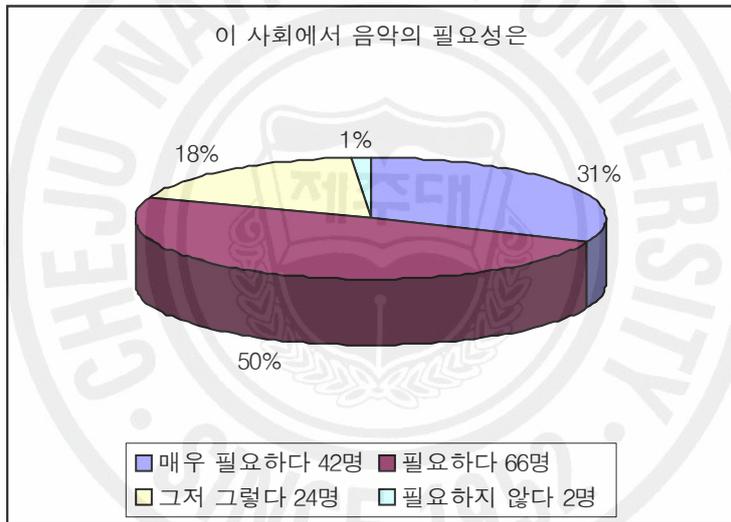
<표 V-17 분석>

개성이 강하고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다수 의견인 53%가 음악활동이 자신의 장래와 미래에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의 장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청소년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예술 활동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음악 활동은 풍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며, 적절한 감정의 수련과 함께 조화로운 자아의 형성을 위해 청소년 개개인에게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음악활동이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37%나 나왔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도 10%

를 차지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벗겨 주기 위해 교육계와, 예술계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V-18, 질문 18문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음악의 필요성은?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42명	31%
필요하다	66명	50%
그저 그렇다	24명	18%
필요하지 않다	2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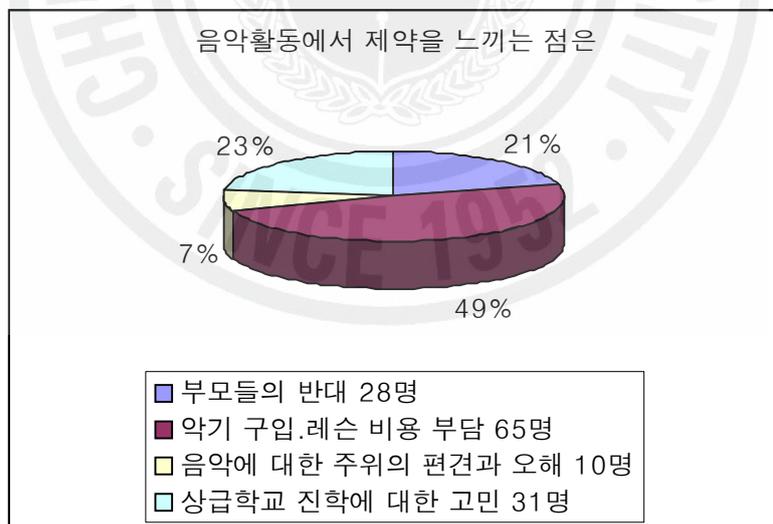
<표 V-18 분석>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은 아름다운 감성 개발과 조화로운 자아의 형성을 위하여 무척 필요한 인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사회에서 음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의 50%는 음악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대다수의 청소년은 음악에 문화적 풍요와 향유를 느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음악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1%에 이르면서 음악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 하도록 하여 올바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는 매개체임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도 음악은 청소년들을 건전한 한 구성원으로 키우고 다음 세대로의 문화의 보존과 전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예술의 한 장르로써 행정 및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활동 지원으로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정되고 문화적 풍요와 향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9, 질문 19문항> 현재 음악활동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제약을 받는 것은?

구분	인원(명)	비율(%)
부모들의 반대	28명	21%
악기구입비 또는 과도한 레슨비용	65명	49%
음악을 한다는 주위 편견과 오해	10명	7%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고민	31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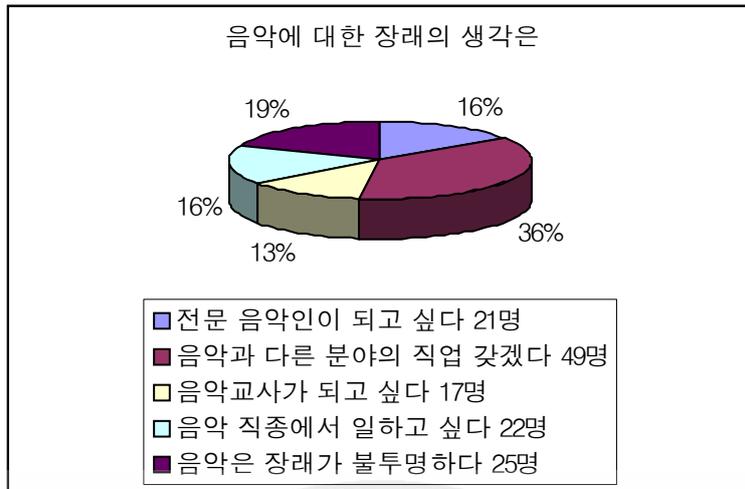
<표 V-19 분석>

제주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창조적인 재능을 키워주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문화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 청소년들의

반응은 음악활동에 있어 자신감 결여와 함께 음악 예술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49%는 음악을 경제적 문제인 비용에 연계해 악기 구입과 레슨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부모와 행정·교육당국이 걱정할 문제를 본인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사고방식은 학교 당국의 교육과정과 부모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시급하고 음악의 중요성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응답자의 21%는 현재 음악활동에 있어 고민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음악을 하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악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의식변화가 이뤄져야 할 부모들이 음악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23%에 달하면서 음악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바람직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일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질문 20문항> 음악활동을 하면서 장래에 대한 생각은?

구분	인원(명)	비율(%)
전문 음악인(연주자)이 되고 싶다	21명	16%
음악활동을 하지만 음악과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	49명	36%
음악교사가 되고 싶다	17명	13%
음악관련 직종에 일하고 싶다(음악학원, 음악기획사 등)	22명	16%
음악을 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할 것 같다	25명	19%



<표 V-20 분석>

음악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 중의 하나이며, 음악과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상호이해를 돕는 소통수단이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문화예술로 현대에 이르러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음악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음악활동과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갖겠다는 답변이 36%로 달했기 때문이다. 또 음악을 해서는 장래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16%에 이르렀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예술행위와 그 과정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응답자 19%는 현재 음악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음악인이 되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 음악학원 또는 음악기획사 등에 일하겠다는 응답도 16%로 나왔다. 음악교사 또는 음악대학의 교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학생들도 13%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이면에는 음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발전하려는 청소년들이 있는 만큼 다양하고 특성화된 음악활동 개발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 음악활동에서 그들의 욕구 및 수요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와 세분화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특히 청소년기 음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음악활동을 영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청소년 음악활동은 다른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의 사례에 비취 볼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문화예술 기반은 물론 음악 자체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1세기(문화의 세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개성을 키우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제주사회가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요구와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확산시키지 못하면서 제주도내 교악대와 청소년 음악단체의 활동 여건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음악활동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 음악활동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재다능한 감수성과 예술 인재의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 가칭 ‘청소년음악발전육성위원회’를 조례를 통해 구성하고 학계, 예술계, 시민사회단체, 기업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형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조례를 구체화하고 교악대와 청소년 음악단체를 총괄하고 통합 지원할 기구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각계에서 지원과 성원, 관심도가 지대하게 높아지고 청소년 음악활동과 연계된 크고 작은 문제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주도립 청소년교향악단’ 설립은 청소년 음악단체의 발전에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부산 및 울산광역시, 경기도 과천시인 경우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확고부동한 대표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설립 목적 역시 청소년들을 균형 있는 인간적 성장과 함께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

가는 능력의 함양에 두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와 음악에 대한 향유를 널리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가칭 ‘제주도립 청소년교향악단’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청소년들의 문화마인드 함양, 문화 실천, 문화 참여 능력을 제고하고 음악 인재 육성·발굴과 창의성 개발, 음악에 대한 접근성 증대, 예술분야의 협력관계 강화 등 폭넓은 활동으로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고, 제주도의 음악문화를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유망 음악인재를 육성·지원할 ‘제주메세나협의회’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메세나 운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는 고교 교악대와 청소년 음악단체에 대해 교육적·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영리기구로서 제주지역 음악 예술단체에 대한 번영을 일으키고 중요한 협력자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제주메세나협의회’는 제주의 음악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각종 공연과 창작 프로젝트, 실험음악 추구 및 청소년 문화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돕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다른 지방과 달리 대기업체가 없는 제주지역에서 각계 기업체와 단체, 개인이 연합한 메세나를 구성, 청소년 음악발전을 위한 기금조성과 음악교류, 사회문화활동 지원, 장학금 지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 관련 기관은 물론 학교간의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문화예술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낡은 악기를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아울러 레슨비용과 고가의 악기구입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음악활동에 걸림돌과 제약이 되고 있다는 응답에서 예산지원의 중추가 될 ‘제주메세나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음악캠프를 페스티벌과 접목한 음악축제로 육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음악적 소양과 기량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름방학 기간에 주로 이뤄지고 있는 음악캠프를 관광지와 휴양지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음악축제로 승화시킬 경우 관광객 유입은 물론 그 지역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 특히 음악가나 음악활동을 폄하하는 사회적 시각도 바뀔 것이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정체감 형성, 자율성 발달, 재능 발달,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근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시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제주지역에서 쉽게 음악활동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이들만을 위한 연습실, 즉 문화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초·중·고교 교악대인 경우도 방음시설이 마련된 연습실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에서 도내 청소년 문화예술단체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 건물을 임대해 연습실을 마련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단원 가입이나 음악활동 방향에 앞서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회관과 한라아트홀 등의 공연시설은 뽁뽁한 공연일정과 비싼 대여료를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문화의 집’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총 21곳의 문화의 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해당 마을주민을 위한 교양강좌가 실시 될 때만 사용하고 있어서 청소년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명도암 유스호스텔,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등 도내에 있는 총 10개의 청소년수련원도 청소년 음악활동을 보장하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청소년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례에 비춰 볼 때 도내 초·중·고교 교악대 및 청소년 음악단체의 공연과 연주회는 학교 개교기념일 및 각 단체의 창단 기념일을 맞아 펼치는 ‘정기 연주회’가 주류를 이루면서 기존의 단일한 분야, 장르에 국한된 연주로 학생들은 물론 도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소년 음악연주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아울러 청소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 이를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시도는 퓨전음악, 팝스음악,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접목 등 음악회를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연주회를 통해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고정관념을 깨뜨린 공연을 펼쳤을 때 음악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일곱째, 고교 교악대의 정기 관악경연대회가 필요하다.

제주도내 고등학교 교악대는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교악대는 각 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학교는 물론 재학생, 동문들이 자랑이 되고 있다. 특히 고교 교악대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은 졸업 후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의 유명 대학 음악학과에 진학하면서 제주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수준 높은 음악 인력을 배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지역에선 각 고교 축구부가 경합을 하는 대회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지만 교악대는 서로의 실력을 뽐내고 경쟁력을 갖출 음악 경연대회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각 교악대의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취도를 높이고 입상을 할 경우 그동안 지원과 성원을 준 학부모와 동문들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고교 교악대가 경연대회를 통해 입상을 할 경우, 전국 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부여하면서 행정·교육당국으로부터 더 나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도내 청소년들의 음악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행정 및 교육당국, 도내 기업체, 예술계 등은 청소년들이 음악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음악활동에 대한 마인드와 신념,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강문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 문화 제6호(제주 문화예술재단), 2003.

강문철 외,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제주시·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발행, 2004.

김미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양경식, 「제주의 관악」, 삶과 문화 제4호(제주문화예술재단), 2002.

양경식·김광정·김상미, 「제주문예연감 기악·성악·합창·창작·기획자료」, 제주 문화예술재단, 2007.

양용선, 「생활밀착형 문화공연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이동연,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개념정립에 따른 정책 연계 방안」, 문화사회연구소, 2004.

홍연숙, 「제주도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주복지정책연구소, 2002.

### - 논 문 -

고선왕, 「제주도내 고등학교 음악과 교구·설비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고현,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수봉,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선문, 「제주도 관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기 타 문 헌 -

경남메세나협의회 자료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자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뉴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자료, 20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 2007.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자료



## 국문초록

근래 들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청소년 음악의 수준은 바로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음악의 기본적 바탕이 견실해야 문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악활동 기회는 많아져야 한다.

실제로 예술계와 문화 정책당국도 긴 안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눈떠가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 고교 교악대와 청소년 음악단체를 단순히 지역의 음악단체가 아닌 국내 최고의,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청소년 음악계도 그 위상과 비전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음악 역시 하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청소년 시절부터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 하였을 때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최고의 음악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도 과거 달리 청소년들이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제주지역 청소년의 음악수준이나 교육적, 사회적 여건은 너무도 열악하고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그마한 노력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행정·교육·문화·예술당국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내구 수명이 다 된 낡고 오래된 악기를 가지고 늦은 밤까지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음악활동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있었다. 또 현재 음악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장래에는 음악가를 꿈꾸지 않거나 음악에 대해 비전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나 있었다. 충분한 지원과 준비 없는 청소년 음악활동은 예술에 대한 정형화된 암기식 지식과 표준화 된 기술습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음악활동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음악예술 활동은 학교와 가정, 지역문화사회와 긴밀한 연계 속에 장기적인 정책과 지원 강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도립청소년교향악단과 도립청소년관악단이 없다는 현실은 그만큼 청소년 음악예술에 대해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입시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 때문에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음악활동과 창조적 예술행위가 꺾히게 되고 심지어 학교와 가정에서도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으로서 필요한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음악활동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 및 교육당국과 지역사회는 연계와 협력·지원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할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Jeju Youth Music Culture

-Focused on Youth Instrumental Music Band-

**Jang, Moon-hee**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t recent times, interest about culture art activity of teenagers is growing completely. Even though standard of teenagers music becomes measure that can aim degree of culture art of Country justly, saying too much may not be. Though basic nature of music solid, culture can develop stably. Therefore, there should be been a lot of music activity opportunitys of teenagers.

Actually, world of art and the culture policy authorities are awoking in necessity of musical education about teenagers in crawling inside measurement. This Jeju inside of a province high school Brass band and teenagers music group domestic the best, to be reared by appreciating internationally level furthermore necessity that is not music group of area simply everybody feel sympathy. In global age, teenagers musical circles may have to finish all efforts so that have

the status and vision.

Need constant teaching and training from teenagers season as music also is not achieved a day. Here is very important social interest which form such environment. When did it so Jeju area teenagers may grow into the best musician and develop.

Jeju area teenagers are receiving a lot of performing art opportunity unlike past. But, it is state that Jeju area teenagers' music level or educational, social situation who appear in this research and investigation is inferior so and support is lacking. To do music activity of teenagers in such inferior circumstance is possible as there are smallish stresses that is unseen in our eye and administration · education · culture · the art authorities about present circumstance with deep interest in teenagers' culture art teaching to guide 21st century reflect on should.

There were teenagers who plays or prepares performance until night that is late with old and old musical instrument that invasion life-time becomes, and there were parents which oppose music activity ahead of university entering upon studies. Also, contradictory time of teenagers who do not dream a musician in the future as does now hard music activity or does not have vision about music was detected well in this questionnaire. Teenagers music activity that is no enough support and preparation may not escape criticism called technology learning that is normalized with memorization way knowledge standardized about art. Music activity must change now in teenagers education.

Music art activity of teenagers are required long-term policy and support estuary plan in strict link with school and family, area culture

society. That presents teenagers cultural institution is lacking, and actuality that it is n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eenagers symphony orchestra and teenagers wind music stage that now does not and supports is not interested community about teenagers music art so much all point show.

Also, music activity and creative art action of Jeju area teenagers is disparaged and even limits their activity in school and family because of course of study that focus is set in audience putting first education.

Teenagers are previewing that know administration and the education officials and local community is big subject that must come actively through link and cooperation, support to increase opportunity of music activity and culture enjoyment so that can have necessary cultural sensibility and creative mind as composition of our society through this study.

